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3주년 및
서거 78주기 추모식
추 모 사

- 일 시 : 2023년 5월 8일(월) 오후 2시 30분
- 장 소 : 국립서울현충원 묘전

광 복 회

추 모 사

“미군정부는 군정에 그쳤으면 좋겠소. 반탁운동은 이 나라 국민의 의사이며 국민운동인데, 국민운동에 군정이 개입한다는 것은 현명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되오.”

이는 강대국들의 한반도 분할과 신탁통치 반대 소신을 가진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 선생님께서 아놀드(Arnold, A. V) 미 군정장관을 향의 방문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일항쟁기,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 교육자, 정치인이셨던 선생님의 굳은 신념과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서거하시기 전까지도 당시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신탁통치에 대해 확고히 반대의견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남 담양에서 출생하시어 유년시절 한말 호남의병의 영수인 성재 기삼연 선생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선생께서는

일본 메이지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중앙중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시면서부터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셨습니다.

3.1운동 당시에는 민족대표 48인의 한 사람으로 만세시위를 지도하시고 그로인해 1년의 옥고를 치르셨으며,

조선민립대학 건립 참여, 일장기 말소사건 등 교육과 언론을 통해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동아일보사 사장으로 취임했다가 일제의 압력으로 사직하고 고문으로 재직, 만국기독교청년회 주최 태평양회의에 조선대표로 참석하셨으며,

이로 인해 이듬해 다시 투옥되어 고초를 겪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꿈에서도 그리던 조국광복이 되고, 한국민주당을 조직, 수석총무가 되어 민족진영의 단결과 정부수립을 위해 진력하신 선생님께서는

해방의 기쁨도 잠시, 안타깝게도 1945년 12월에 괴한의 총탄에 신다섯의 생을 마치셨습니다.

선생님의 서거는 민족지도자 암살의 서막이었으며, 우리민족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 여운형 선생, 장덕수 선생, 김구 선생의 연이은 피살은 우리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살아생전 민족과 민주, 민생과 민문의 ‘사민(四民)주의’ 사상을 구국의 기본사상으로 삼고

언론과 교육, 산업과 문화 활동을 통해 독립을 위한 민족의 힘과 열을 고취하신 선생님이시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세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이 위태롭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 이 때,

지난날 반탁운동을 전개하여 외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광복

된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셨던 선생님의 드높은 기개를
뻗속 깊이 아로 새겨,

저희 후세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국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시
는 우리나라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국권을 상실하여 민족적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음우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5월 8일

광복회장 직무대행 최 광 휴